

해석 공동체의 개념 탐구

—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

김도남*

〈차 례〉

- I. 서언
- II. 해석 공동체의 개념
- III. 해석 공동체의 체계
- IV. 해석 공동체의 구성
- V. 해석 공동체의 지향
- VI. 결론

I. 서 언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新)民 在止於至善

위의 글귀는 유교 경서인 『대학』 첫 구절이다. 이 구절의 풀이는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름에 있다’이다(박일봉, 1988:27). 독자들은 이 구절 풀이를 읽고, 글귀의 의미를 생각한다. 글귀에 대한 의미는 독자마다 다르기 보다는 독자 집단마다 다르다. 유학 경전을 학습한 독자 집단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전을 공부한 사람은 다른 의미로 해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donamsi@hanmail.net

석한다. 이 글귀 해석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明德(명덕)'이다. 이 明德의 의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은 독자 집단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적 신념에서 明德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독자는 明德을 '하느님 말씀'의 뜻으로 해석하고, 불교적 신념을 가진 독자는 부처가 가르친 '삶의 이치' 의미로 해석하며, 유교적 신념을 가진 독자는 공자가 말한 '바른 삶의 도리'로 해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낱말도 어떤 신념을 가진 독자가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독자들은 텍스트를 집단적 의식에 기초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집단적 의식(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 조직체를 '해석 공동체1)'라 한다.

읽기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²⁾.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의 근거에는 해석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읽기 교육에서는 집단³⁾내에서의 개별적 관념 구성을 강조함으로써 해석 공동체를 소홀히 한다. 즉, 읽기 교육에서는 집단적 텍스트 해석을 강조하지⁴⁾ 그 해석의 내용은 개별 독자에게 일임된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공통된 관념 구성을 하지 못한다. 이 읽기 교육에는 종교적 신념과 같은 공

- 1)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ies)는 피쉬(Fish, 1980:167~173)가 사용한 말이다. 한 독자가 두 텍스트를 같은 방식을 해석하거나 두 독자가 한 텍스트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유를 탐색하면서 해석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피쉬는 해석 공동체 구성 조건으로 구성원의 해석 전략 공유를 들었다.
- 2) 현재의 읽기 교육은 독자(학습자) 중심의 읽기 교육이다. 그래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학습자의 주체적 독서를 강조한다. 다만 비고츠키의 논의가 읽기 교육에 받아들여지면서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습자 간의 상호주관적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도남, 2006). 독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교육 방법은 협동학습이다(신현제 외, 2003 참조).
- 3) 집단과 공동체는 다르다. 집단은 구성원들이 심리적인 유대나 없는 사람들의 조직체이고,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의 조직체이다. 집단과 공동체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그네스 헬러(편집부(백산성당), 1984:11~34)와 강선보(2005:190~201)를 참조할 수 있다.
- 4) 여기서 집단적 텍스트 해석을 강조한다는 것은 독자 중심 읽기와 같이 개별 독자의 관념 구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동체 의식의 부재와 관념을 공통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없다⁵⁾. 학습자들은 개별 관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집단을 이용할 뿐이다⁶⁾. 그 결과 학습자들은 해석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독자의 해석 활동은 공동체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관념을 구성할 때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실제 독자의 해석 활동은 해석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해석 공동체가 주목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읽기 교육에서는 해석 공동체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텍스트 읽기에 대한 해석 공동체의 논의는 문학 해석이나 영화 감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학 해석에서는 작품 읽기에서 해석 공동체가 하는 역할을 규명하고(박경일, 2005), 문학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적 여건에서 비롯된 해석 공동체의 의미와 기능을 논의한다(김전우, 1996). 영화 감상에서는 대학생들의 영화 감상문 분석을 통하여 드러나는 해석 공동체의 존재와 속성을 분석하고 있다(이소희, 1998). 이들 논의는 해석 공동체의 존재적 특성을 밝히고, 작용 양상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해석 공동체는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의식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읽기 교육을 전제한 해석 공동체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텍스트 이해 교육은 자유주의⁷⁾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루

-
- 5) 읽기 주체들의 관념 공유 부재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06)을 참조할 수 있다.
- 6)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관념의 합의나 공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읽기 협동 학습(신현재 외, 2003)에서 보면, 학생들의 학습 내용 공유가 중요한 활동 목표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과 같은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관념의 공유가 아니다. 단지 집단적 필요에 의하여 또는 상황에 따라 공유할 뿐이다. 박태호(1996:34~38)의 논의를 통하여 사회구성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할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는 반정초주의(anti-foundationalism) 입장을 견지한다. 반정초주의는 독자들이 종교적 신념과 같은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관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정초가 필요하다고 보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해석 공동체는 사회구성주의와 다르다.
- 7) 자유주의(liberalism)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대립되는 관점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삶의 양식에 대해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자유의 능력 혹은 선택의 능력을 갖는다. 자유주의는 자유의 능력 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명해 주는 것이라

어졌다⁸⁾. 개별 독자를 존중하고, 창의적(독창적) 관념 구성에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입각한 읽기 교육은 다른 독자와의 관계를 확립하지 못하게 했다. 독자들은 다른 독자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관념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다른 독자를 존중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⁹⁾. 그렇게 됨으로써 독자들은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해석 공동체는 공동체주의¹⁰⁾ 관점에 기초를 둔다. 독서에서의 공동체주의는 독자 간의 관념 공유를 강조한다. 개별 독자만이 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 관념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의 구성에 관심을 갖는다¹¹⁾. 독자들은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을 구성할 때 해

고 역설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이다(김신구, 1999:25~26). 자유주의는 그 사상과 운동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능력 발휘의 기회를 확보하고 보다 평등한 자유의 분배를 실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자유가 적절히 절제될 때 인간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측면을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 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개인주의를 이끌어 내고, 다시 이기주의로 연결됨으로써 사회 해체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유병렬, 2002:37~38).

- 8) 읽기 교육에서의 자유주의는 독자 중심 읽기 교육을 가리킨다.
- 9) 협동학습의 원리는 학습자들이 서로 비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계설정은 학습자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연결되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즉, 개별성은 서로 간의 차이성과 경쟁심을 유도하므로 학습자들은 서로를 이용하게 된다.
- 10)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등장하게 되었다.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 공동체적 삶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개인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병폐를 치유하고 인간의 참된 자이를 실현하여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바람직한 공동체를 새로이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타인의 존중과 온정적 배려, 더불어 복된 삶을 사는 인간들의 모임, 상호의존과 연대성에 기초한 인간관계, 공유된 가치와 공통의 목적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결속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그들은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복지와 안위를 염려하며, 서로 도우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그러한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추구한다(유병렬, 2002:88).
- 11) 제7차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 국어능력 향상이다. 읽기와 관련하여 목표를 정의하면 창의적 읽기능력 향상이다. 창의적이라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다른 사람과의 구별되는 것이다. 즉 창의적이라는 것은 독자간의 관념의 공유보다는 구별을 강조한다.

석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¹²⁾.

텍스트 이해는 독자가 마음속에 관념을 구성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독자가 구성한 관념은 텍스트 속에서 독자 마음속으로 이송되거나 독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독자가 텍스트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성한 것이다. 앞에서 明德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텍스트 해석에 사용하는 이 신념은 독자 고유의 것이 아니다.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모두의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서 배운다.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의식은 많다. 해석 공동체 소속감과 타 구성원과의 심리적 연대,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등이 있어야 한다. 이들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공동 관념¹³⁾과 해석 전략¹⁴⁾이다. 이 외에 해석의 관점과 해석의 지향점 등이 중요 요건이 된다.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¹⁵⁾들의 텍스트 해석에 관심을 갖는다. 읽기

- 12)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며, 각자의 존엄성을 기치 있게 여긴다. 건강한 공동체는 집단들이 각각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배려해 주고, 서로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며, 협력과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려운 일에 대한 격려와 칭찬 감사가 존재하면 구성원들은 그들이 서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곧 한 마디로 '이차적 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포용되어진다. 이단이나 다른 의견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여지가 존재한다. 추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김태훈, 2002:106).
- 13) 공동 관념은 개별 독자가 관념을 구성할 때 배경지식과 같이 관념의 바탕이 되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관념이다. 김태훈(2002:102~105)은 공동체의 구성 조건으로 핵심 가치의 공유를 들었다. 그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는 이타적 덕(배려, 신뢰, 협력)을 제시한다. 그 외에 정의(유병렬, 2002:51~53), 공동선(박찬석, 2002:142)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이들 핵심 가치는 도덕 공동체의 것이다. 해석 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공유 핵심 가치로 공동 관념을 들 수 있다.
- 14) 해석 전략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피쉬(Fish: 1980:171)는 해석 공동체의 구성 조건으로 해석 방법을 들었다. 같은 해석 방법을 사용할 때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말이다. 읽기 교육에서 텍스트 중심 접근, 독자 중심 접근, 상호작용 중심 접근 등을 구분하는 데 이들 접근의 차이는 해석 전략의 차이로 할 수 있다.
- 15) 읽기 주체는 텍스트를 읽는 행위의 주관자이다. 읽기 주체는 텍스트를 읽고, 관념을 구성하고, 관념을 대표한다(김도남, 2005). 여기서는 텍스트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에 해석의 행위 주관자라는 의미에서 '해석 주체'라는 말을 사용한다.

주체들이 텍스트 해석을 타당하게 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이다. 이 논의는 읽기 주체들이 공동체를 바탕으로 타당한 관념 구성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해석 공동체의 구조 체계와 기능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공동체 내에서의 해석 주체의 역할을 점검한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해석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읽기 교육의 지향과 읽기 활동의 원리 조건을 생각해 본다. 이는 읽기 교육에서 해석 공동체에 관심을 갖자는 의도에서이다. 읽기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주장이 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이 모두를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 공동체의 기초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살피고, 구체적인 읽기 교육적 접근 방법은 다음 논에서 다루고자 한다.

II. 해석 공동체의 개념

해석 공동체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한다. 공동체는 사람들의 특정한 의도 하에 모여진 조직체이다¹⁶⁾.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촌락을 이룰 수도 있고,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교를 이룰 수도 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의식과 구성원의 공동체 관계를 지향한다. 공동체는 생활 속에서 의식적 필요에 의하여 또는 무의식적으로 구성된다. 개별 주체의 공동체 가입과 탈퇴는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¹⁷⁾. 공

16) 공동체는 관계망 속에 결속되어 있는 한정된 사람들로 형성된다. 그 성원은 일단의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한다. 그 관계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보통 대면적이다. 그 성원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자기 이익보다는 우정이나 의무감이다. 성원간의 유대는 몇 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전체에 얽혀있다. 성원들은 소속감, 즉 '우리 의식'을 느낀다. 각 성원의 이익과 정체성은 전체 이익과 정체성에 의존하고, 또 이를 형성한다. 그리고 성원들은 서로의 결속력을 표현한다(이지현 편저, 1997:55).

17) 롤즈(Rawls, 1971)는 개인들이 공동체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본다. 공동체는 자유롭게 선택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결사체이다.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이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동체의 성격과 지향은 구성원들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하고, 공동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정신적 연대를 이루고 있고, 그 정신적 연대에 의하여 존속된다. 정신적 연대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사라진다.

해석 공동체는 '공동 관념'¹⁸⁾에 기초한 해석 주체들의 '해석 관념'¹⁹⁾의 연대(連帶)로 이루어진다. 해석 주체들은 타 해석 주체가 해석 관념을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그래서 해석 주체들은 서로의 해석 관념에 영향을 미친다. 서로의 해석 관념에 대하여 공유하는 부분을 갖는 것이다. 해석 주체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 공유 관념²⁰⁾이 관념의 연대를 이루게 한다. 해석 주체들은 표면적으로 해석 관념을 매개로 공동체의 연대를 이룬다. 그렇지만 해석 공동체 구성에 심층 조건은 공동 관념²¹⁾이다. 공동 관념은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가 공유한 관념이다. 해석 주체들이 공유한 공동 관념이 있어야 해석 공동체가 된다. 해석 공동체에 공동 관념이 있으면 몇몇 해석 주체가 떠나도 공동체는 유지된다. 그러므로 해석 공동체는 공동 관념을 공유한 해석 주체들의 해석 관념 연대에 의하여 구성되고 유지된다.

공동체는 나의 것이지 나일 수 없다. 이것은 출생이 공동체의 성원됨의 기초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김선구, 1999:45)

- 18) 공동 관념은 공동체 의식의 한 요소이다. 공동 관념은 해석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요소이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는 해석 공동체 의식을 공동 관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동체 의식을 언급한다.
- 19) 해석 관념은 해석 주체가 텍스트를 해석하여 구성한 관념이다. 해석 관념은 공동 관념에 기초한 관념이면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관념이다. 필요에 따라 '관념'이라고 쓴다.
- 20) 공유 관념과 공동 관념은 구별해야 한다. 공유 관념은 텍스트 해석에 참여하는 해석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성하고 소유한 관념이다. 반면, 공동 관념은 해석 주체가 구성한 관념이 아니지만 해석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유해야 하는 관념이다.
- 21) 공동 관념은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념으로 텍스트 해석에 바탕이 된다. 해석 공동체 구성원의 심층의식 속에 존재한다. 본문의 明德을 해석할 때 각 독자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같은 것이 공동 관념이다. 이 공동 관념은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이다. 해석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의 뿌리이다.

해석 공동체는 텍스트 해석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해석 공동체는 하나의 텍스트 해석을 위한 공동체라기보다 텍스트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공동체이다. 해석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 공동체의 구성 조건을 앞의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 이상의 해석 주체가 있다. 이들 해석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갖는다. 둘째, 텍스트 해석에 대한 특정한 성향을 가진다. 해석 주체들이 공유한 성향을 '해석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텍스트 해석에 필요한 방법이 있다. 해석 주체들이 공유한 해석 방법을 '해석 전략'이라 할 수 있다²²⁾. 넷째, 공동적인 의식의 기반이 되는 관념이 있다.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 관념이 '공동 관념'이다. 다섯째, 텍스트 해석에 대한 특정한 의도를 갖는다. 해석 주체들은 의도 없이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 주체들이 공유한 의도를 '해석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²³⁾. 이들 조건으로 인하여 해석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해석 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공동 관념은 해석 주체 대해 객체이다. 해석 주체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독자의 배경지식이 독자 고유의 것이 라면 공동 관념은 공동체 고유의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 것이지만 주체의 고유성 갖지 않는다²⁴⁾. 이 공동 관념은 해석 주체들의 합

22) 피쉬(Fish, 1980)는 해석 공동체를 해석 전략의 공유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했고, 피쉬의 영향을 받은 비치(Beach, 1993)는 공동체의 내적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전략과 관습을 해석 공동체의 구성 매개로 보았다(신현재·진선희, 2006:31~32). 해석 전략과 해석 관습은 해석 주체들이 해석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표면적인 매개이다. 해석 주체들이 해석 전략과 관습의 공유만으로 해석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들의 관념 공유가 바탕이 된 의식적 연대가 있어야만 된다.

23) 해석 주체의 지향점은 해석 주체 간의 관념적 연대를 추구하는 '구심적 지향'과 해석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원심적 지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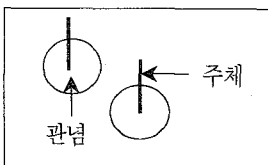
24)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 관념은 상호주관적 특성을 갖는다.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한다. 그러나 상호주관은 주체의 개입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공동 관념은 주체의 개입 없이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선험적 상호주관성과도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선험적 상호주관은 주체들이 선험적으로 갖는 것이지만 공동 관념은 해석 주체가 갖기 이전에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김병길·김신욱, 2002 참조).

의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이미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해석 주체는 다른 주체와 직접 대화를 통하여 공동 관념을 알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조를 통하여 알 수도 있다. 이 공동 관념의 공유는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 관념의 학습은 공동 관념을 전달하는 주체(지도자,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해석 주체는 공동 관념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예를 들어 구조주의 텍스트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은 소쉬르의 '구조 개념'을 공유해야 한다. 이 구조 개념을 갖지 못하면 텍스트를 구조주의적 방식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공동 관념은 해석 주체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다. 해석 주체는 공동 관념과 상보적이다. 해석 주체는 공동 관념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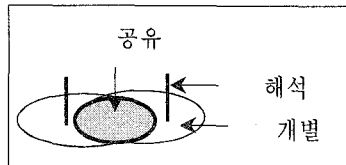
해석 공동체의 해석 주체가 구성하는 해석 관념은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 하나는 타 주체와 공유하는 '공유 관념'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의 개별성을 갖는 '개별 관념'이다. 공유 관념은 타 주체와 상호주관을 갖는 부분이고, 개별 관념은 주체가 타 주체와 구별되는 주관의 부분이다²⁶⁾. 해석 주체가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 해석 관념을 '공주관'이라

25) 예를 들어 <심청전>의 주제를 불교나 유교의 관념에서 '불공에 따른 불교적 극락왕생 또는 불교적 재의(齋儀)로 보거나 심청의 효'로 본다. 이러한 해석은 공동 관념이 주체의 해석에 영향을 준 것이다. 한편, 조동일은 표면적 주제는 유교이념을 긍정하는 보수적인 효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유교이념을 부정하는 진보적 현실주의라고 나누어 파악하기도 한다. 이 조동일의 해석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해석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해석 주체가 공동 관념에 영향을 준 예라 할 수 있다(엠포스 백과사전 참조).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67422>)

26) 해석 주체의 상호주관 구성에 대해서는 김도남(2006)을 참조할 수 있고, 주관 구성에 대해서는 김도남(2005)를 참조할 수 있다. 해석 주체의 주관과 상호주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관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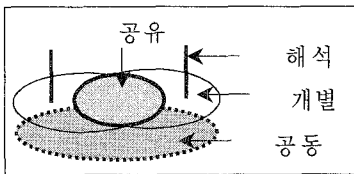


<상호주관의 구조>

한다²⁷⁾.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新)民 在止於至善을 불교적 신념을 가진 해석 주체는 '큰 공부의 길은 부처님 말씀의 바른 뜻을 밝히고,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사람들이 극락정도에 들도록 하는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불교적 신념(공동 관념)이 바탕이 된 해석 주체들의 관념과 관련(공유 관념)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 至善을 극락정도로 바라보는 해석 주체의 관념(개별 관념)도 함께 한다. 이러한 해석 주체의 관념이 共주관이다.

읽기 교육 활동에도 해석 공동체는 존재한다. 텍스트 중심이나 독자 중심의 읽기 교육에서 해석 공동체는 항상 존재한다. 학습은 하나의 해석 공동체이다. 다만, 읽기 교육 상황에서 해석 공동체가 부각되지 못하여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소집단 읽기 학습이나 읽기 협동학습이 그 좋은 예이다. 소집단 읽기 학습은 텍스트 해석을 집단 구성원들이 각자 책임량을 나누어 맡아서 하고, 그 결과를 집단의 해석 결과로 제시한다. 집단 구성원들이 다같이 참여하였으나 공동 관념에 관심이 없다. 과제 해결에 모든 의식을 집중한다²⁸⁾. 읽기 협동학습도 개인 책무성이나 상호 의존성, 적극적 참여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개인 학습자의 발달을 강조한다. 표면적으로는 관념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간의 차별(이질집단구성, 향상점수)이나 경쟁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경쟁의식을 강조한다²⁹⁾. 구성원 간의 목적 있는 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해석 주체들이 근

27) 共주관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共주관의 구조〉

- 28) 이에 관련된 학습 활동은 프로젝트 학습법(지정옥, 1995)을 참조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법의 주요 관심은 소집단 구성원이 협력하여 집단에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 29) 읽기 협동학습에 대해서는 신현재 외(2003)를 참조할 수 있다.

본적으로 관념의 연대 의식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 두 학습 방법 모두 개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송승의 법칙)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석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활동이 된 것이다. 학교의 읽기 수업이 해석 공동체를 구성하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 주체의 주관이나 상호주관 구성을 넘어 쫘주관 구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III. 해석 공동체의 체계

텍스트 해석 공동체는 개별 해석 주체가 활동하기 전부터 존재한다. 텍스트가 있고, 독자가 있으면 텍스트는 해석되어 왔다. 해석 공동체의 시작은 텍스트가 존재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해석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해석 주체를 의식하면서부터 해석 공동체는 존재하기 시작한다. 해석 주체는 자신과 구분되는 다른 해석 주체를 만나야 해석 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 공동체는 기능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몇몇 해석 주체들이 특정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만든 해석 공동체가 있다. 학급 독서 모둠이나 독서 동아리와 같은 것이다. 개별 해석 주체들이 특정한 의도 하에 만들어진 해석 공동체이다. 이와 달리 대학의 학과나 학회와 같은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구성원이 많은 해석 공동체가 있다. 전자를 '미시 해석 공동체'라 한다면, 후자는 '거시 해석 공동체'이다. 이 두 공동체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재 해석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해석 공동체를 묶어서 '총체 해석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시 해석 공동체

미시라는 말은 작게 본다는 뜻이다. 특정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식

할 수 있게 축소해서 보거나 특정 부분만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 미시 해석 공동체는 거시 해석 공동체의 일부 공동체이다. 두 개 이상의 공동체가 연합한 거시 해석 공동체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미시 해석 공동체는 거시 해석 공동체에 비하여 작고 분명하다. 구성원, 활동 특성, 활동 목적, 활동 전략, 활동 과정, 활동 결과 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미시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외부에서도 공동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미시 해석 공동체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 많이 있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다. 공동체라는 것이 물리적인 범주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이 가능하다.

미시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타의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학교 독서 동아리는 자의적이지만 학급의 모둠은 타의적이다.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해석 주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해석 주체들의 의지에 따라 공동체의 특성이 달라진다. 해석 주체들은 공동체 내에서 해석 전략을 익히고, 공동 관념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석한다. 그러면서 타 주체와 관념 소통을 통한 유대를 형성한다. 해석 주체들은 텍스트 해석에서 서로 의지한다. 해석 전략의 사용과 해석 관념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점검한다. 즉, 해석 주체들은 서로 관심을 가지며, 해석 공동체에 적극 관여한다. 해석 주체의 공동체 관여는 타 주체와 대립과 협력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것이다. 해석 주체들은 각기 쉼표를 구성하고 쉼표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다.

해석 주체들은 텍스트에 대한 개별 관념을 구성하지만 그 관념은 공동체 내에서 강조되지는 않는다. 해석 공동체는 개별 주체의 해석 관념이 갖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는 극복되거나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자유주의 관점(개인주의, 독자 중심)과 반대되는 부분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주체의 개별 관념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주체의 개별 관념은 해석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주체의 해석 관념이 해석 공동체의 관념 범주를 벗어나

면 제지가 가해진다. 해석 주체가 공동체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석 주체는 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다. 미시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별 주체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공동 관념의 허용 범주 내에서 조절하도록 한다³⁰⁾. 개별 주체들은 관념에 대한 합리화보다는 객관화를 지향한다. 즉, 타 주체와의 타협을 통하여 관념을 수정한다. 그렇게 하면서 해석 주체들 간의 공유 관념의 영역을 확대한다. 이는 해석 주체들이 해석 관념의 확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관념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관념의 조정은 주체간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기보다 공동 관념에 기초한 판단이다. 공동 관념이 해석 관념을 판단하는 준거인 것이다. 해석 주체들의 상호작용은 공동체의 공동 관념을 반영한 공유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미시 해석 공동체 구성원의 텍스트 해석은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 해석의 경향성은 주로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미시 해석 공동체는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을 학습하고, 실제적인 해석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학교에서는 개별 학급이 미시 해석 공동체의 최대 단위가 된다. 학급 내에 작은 모듈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작은 모듈들은 하위 미시 해석 공동체가 된다. 미시 해석 공동체의 해석 활동은 토론이 주가 된다. 형식적으로 읽기 협동학습이나 독서 클럽, 독서 워크숍과 같은 활동이다. 그러나 협동학습이나 독서 클럽, 독서 워크숍 등이 해석 공동체의 특성을 갖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 공동체의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가 개별적 반응을 형성하여 명료화하고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반응을 형성하여 조정하고, 공유해야 한

30) 해석 주체들은 해석 관념을 두 가지 입장에서 구성한다. 공동체 지향의 관념 구성과 공동체 이탈의 관념 구성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해석을 '구심적 해석', 공동체 이탈을 지향하는 해석을 '원심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구심적 해석은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원심적 해석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해석 주체의 구심적 해석과 원심적 해석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동력이다.

다. 이러한 텍스트 해석은 공동체의 속성을 반영한 해석이다. 반응의 심화가 주체를 존중하는 해석이라면 반응의 공유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해석이다³¹⁾. 공동체 해석은 해석 전략의 공유나 관념의 연대 및 공동체의식을 공유한 해석 활동이다.

2. 거시 해석 공동체

거시라는 말은 크게 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크게 본다는 의미는 개별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거시 해석 공동체는 두 개 이상의 미시 해석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구성원을 달리하는 미시 해석 공동체의 연합이다. 그래서 거시 해석 공동체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석 주체들의 심리적 의지치로 작용한다. 거시 해석 공동체는 단순히 미시 해석 공동체의 연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의 심리적 원천이고, 공동체 의식의 구심점이다. 해석 주체들이 추구하는 텍스트 해석의 이상적 표준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러한 심리적 거시 해석 공동체는 개별 주체들이 활동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며, 미시 해석 공동체에 의하여 확장되고 변화한다. 공동체의 변화는 미시 해석 공동체의 해석 전략과 관념을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거시 해석 공동체의 예는 한 지역의 같은 학년 학생들이나 대단위 학회, 대학의 한 학과 등이다. 각 대학의 학과는 단위 학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그 학과의 구성에는 역사적인 학문적 전통이 있다. 그리고 다른 대학의 학과와 공동 관념에 기초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

거시 해석 공동체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 주체들이 공동체 요건(전략, 관습, 관념, 의식 등)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31) 해석 주체 중심의 해석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원심적 해석이고, 공동체 중심 해석은 구심적 해석이다. 원심적 해석은 공동체의 발전율, 구심적 해석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인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해석 주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

가 구성원이다. 공동체 요건의 공유는 거시 해석 공동체에서 미시 해석 공동체에게 전달하여 이루어진다. 요건의 공유는 고대와 현대를 따지지 않고, 도시와 지방을 패념치 않는다. 해석 공동체 구성 요건은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구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기도 한다. 해석 공동체가 지닌 요건은 고정되지 않는다. 새 요건이 제기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곧 공동체의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시 해석 공동체는 이들 공동체 요건을 결정하고 유지하고 관리한다.

거시 해석 공동체는 관습, 관념, 목적, 지향점, 전략, 연대 의식 등을 미시 해석 공동체에 제공한다. 학교 공동체를 보면, 거시 해석 공동체의 핵심부에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공동체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학급 공동체에서는 교사를 통하여 이들 공동체 구성 요소를 학습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거시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읽기 교육에서 보면, 학교 해석 공동체는 거시 해석 공동체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 개별 학습자들이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공유관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거시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학습자들이 공유해야 할 공동 관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읽기 교육은 공동체주의 관념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 자유주의 관념에서 해석 전략을 강조하고, 개별 관념을 중요하게 여긴다. 공동 관념과 공유 관념의 강조 없이는 거시 공동체의 다른 요건을 강조한다고 하여 해석 주체가 공유관을 구성할 수 없다. 진정한 해석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읽기 교육이 해석 주체들이 공유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3. 중재 해석 공동체

거시 해석 공동체와 미시 해석 공동체는 중재 해석 공동체에 의하여 그 기능을 다한다. 중재 해석 공동체는 거시 해석 공동체와 미시 해석 공동체의 중간에 위치한다. 두 공동체를 넘나들면서 미시 해석 공동체와 거시 해석 공동체에 연결한다. 이를 통하여 거시 해석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재 해석자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텍스트 해석을 수행하기도 하고, 해석 전략이나 해석 관념을 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재 해석 공동체의 주 역할은 미시 해석 공동체를 교육하여 거시 해석 공동체에 연결하는 것이다.

중재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은 주로 미시 해석 공동체와 함께 활동한다. 중재 해석 공동체 구성원은 표면적으로 미시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거시 해석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이 미시 해석 공동체를 거시 해석 공동체와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만약 중재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이 미시 해석 공동체만을 지향하게 되면 거시 해석 공동체는 존재 의미가 없고, 미시 해석 공동체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사회는 중재 해석 공동체의 바른 역할을 강조한다. 학교의 교사는 거시 해석 공동체와 미시 해석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중재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다. 사회 곳곳에는 교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중재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다.

중재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은 거시 해석 공동체의 경험을 갖는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텍스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재 해석 공동체의 해석 전략과 공동 관념 및 공동체 의식의 소유는 거시 해석 공동체의 표식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 즉, 미시 해석 공동체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권한은 공동 관념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내재적인 힘이다. 중재 해석 공동체 구성원은 해석의 주체이면서 중재의 주체이고, 해석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주체이다. 그래서 중재자는 근본적으로는 미시 해석 공동체에 대한 지도의 책임을 큰

의미로 받아들인다.

중재 해석 공동체 구성원은 거시 해석 공동체의 해석 준거를 활용하여 미시 해석 공동체를 지도한다. 지도는 미시와 거시 해석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해석 전략을 지도하여 해석 관념을 구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중재자(교사)의 도움이 없어 관념의 공유와 유대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교사의 역할은 해석 전략의 지도만이 아니라 미시 해석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 활동 과정에서 지도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다³²⁾. 평가는 학습자들이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4. 총체 해석 공동체

총체 해석 공동체는 미시, 거시, 중재 해석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 총체 해석 공동체는 이들 세 해석 공동체가 각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안정된 상태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변화 발전한다. 새로운 미시 공동체의 등장과 거시 공동체의 대처를 통하여 중재 공동체의 생성과 미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미시와 거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총체 해석 공동체는 변해가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해석 관념을 생성해 낸다. 새로운 전략과 관념은 새로운 해석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

총체 해석 공동체는 다양한 미시 해석 공동체를 갖는다. 거시 해석 공동체의 핵심에 있는 공동체도 있지만 주변부에 있는 공동체도 있다. 이들의 관계는 공동체의 해석 요건 공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공동체 해석 요건의 공유에는 공동체 간 시간적 거리가 존재한다. 해석 주체들

32) 김상욱(2004:81)은 해석 공동체가 해석 주체의 주관성에 대한 객관적 여과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라고 본다.

사이의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 등의 전달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시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들을 공유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해석 전략보다 기존의 해석 전략을 고수할 수도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시 해석 공동체들은 공동체 간에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싶어 한다. 같은 거시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해석 전략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추구한다. 이러한 구성원의 의식은 다양한 속성의 미시 해석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 해석 공동체는 다양한 미시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총체 해석 공동체는 공동체 간의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미시나 거시 공동체 간에 같은 전략의 공유나 공동 관념이 없으면 총체 해석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같은 전략의 공유나 공동 관념을 갖지 못한 공동체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중심 해석 공동체와 독자 중심 해석 공동체는 서로 다른 해석 공동체가 된다³³⁾. 그들은 해석 전략이 다르고, 그 결과 읽기 주체들이 구성하는 관념이 달라진다. 이럴 경우 이들 해석 공동체들 간에는 벽이 생기게 된다. 텍스트 중심 해석 공동체는 하나의 총체 해석 공동체가 되고, 독자 중심 해석 공동체는 또 다른 총체 해석 공동체가 된다. 하나의 총체 해석 공동체는 거시 해석 공동체의 전략을 미시 해석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중재 공동체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다. 중재 공동체의 역할이 거시와 미시의 유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체 해석 공동체는 계속 변화한다. 공동체의 크기와 전략의 정교화가 이루어져 해석 관념이 풍부해지는 양적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해석 관점과 공유 관념 및 해석 전략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질적 변화도 있다. 양적 변화는 해석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지만 질적 변화는 새로운 해석 공동체로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 중심 해석 공동체가 여러

33) 텍스트 중심 해석 공동체와 독자 중심 해석 공동체는 피쉬(Fish, 1980)가 말하는 전략을 공유한 해석 공동체이다.

미시 해석 공동체를 가지게 되는 것과 텍스트 형식 구조 활용 전략이 텍스트 내용 구조 활용 전략을 바뀌게 되되는 것은 양적 변화이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 해석 공동체가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인지 독해 전략을 강조하는 독자 중심 해석 공동체로 바뀌는 것은 질적 변화이다. 텍스트 요인에 기초한 해석이 독자의 요인에 바탕을 둔 해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질적 변화는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IV. 해석 공동체의 구성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들로 구성된다. 단지 해석 주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해석 주체들의 심리적 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해석 주체들을 엮어주는 내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석 주체들은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한다. 독자 중심의 읽기 방식의 경우, 독자들은 자신의 관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주체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읽기 소집단 학습이나 읽기 협동학습도 공동체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석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다. 해석 주체들의 관념의 연대가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해석이나 상호주관적 해석 모두 해석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상호주관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많이 갖추기는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동 관념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석 주체 간의 해석 관점이나 지향점의 통일의 전제를 갖지 않는다. 다만 활동의 과정이 같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한다.

해석 공동체 구성은 해석 주체들의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 해석 주체들은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 등을 학습을 통해 익힌다. 해석 주체들은 중재 해석 공동체의 지도로 학습을 한다. 중재 해석 공동체의 대표 격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지녀야 하는 요건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내용

을 배운다. 교사의 교육 활동은 형식적·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석 주체들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평가도 받아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교사의 지도와 평가의 결과로 학습자들은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평가의 결과에서 공동체가 원하는 기준을 넘으면 해석 주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다. 타 주체들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인정이 구성원의 소속감을 결정하는 데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해석 주체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상호작용은 텍스트의 선택과 활동, 역할의 분담과 정보의 공유는 물론 심리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활동을 목적이나 의도를 공유하고, 활동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활동을 해 나간다. 해석 주체는 텍스트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다. 해석 활동의 과정에서 해석 주체들 간의 차이는 대화를 통하여 조정한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해석 주체들은 서로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해석 활동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다른 주체의 관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동 관념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구성원들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서로 동질감을 갖기 위한 상호작용을 한다. 해석 주체의 상호작용은 공유관 구성에 기여하고, 그것이 해석 주체의 관념을 정교화하고,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해석 주체들은 공동 관념을 기반으로 한 관념의 연대를 형성한다. 읽기 주체들은 공동 관념을 활용함으로써 해석 관념을 구성하고 공유한다. 예를 들어 심청전을 ‘효행은 복을 받는다’로 해석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 해석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심청전을 효행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심청전을 효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심청이의 모든 행동을 효의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 줄거리는 효와 관련하여 표상이 되고, 심청의 행동에서 효의 의미를 찾는 해석을

한다. 그 결과 해석 주체들은 공동체가 '효도의 미덕'이라고 규정한 관념을 텍스트 해석에서 다시 확인하고, 해석 관념을 효라고 구성한다. 이러한 해석의 방식은 해석 주체들이 동일한 해석 전략을 사용한 결과 공동 관념에 수렴되는 관념을 구성하게 한다. 즉, 해석 주체들이 공동 관념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하게 한다. 이러한 연대는 춘향전과 같은 텍스트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념의 연대가 이루지지 않으면 해석 공동체는 와해된다. 예를 들어 심청전의 주제를 유교이념을 부정하는 진보적 현실주의(조동일)라고 해석을 한다면³⁴⁾ 이는 기존의 해석 공동체를 벗어나는 관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해석 방식과 관념을 기존의 해석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새로운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그 공동 관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해석 주체들은 거시 해석 공동체로의 발전 의지를 갖는다. 해석 주체들은 자신의 관념이 다른 주체들에게 인정되기를 바란다. 해석 주체가 관념에 대하여 타 주체의 인정을 바라는 것은 미시 해석 공동체를 넘어 거시 해석 공동체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정에 대한 기대 의식은 해석 주체의 필연적인 욕망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인정 기대는 미시 해석 공동체가 거시 해석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도 된다. 새로운 해석 전략을 바탕으로 한 관념의 구성이 미시 해석 공동체에서 성립되었을 경우 이 관념은 다른 공동체와 연대를 함으로써 거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공동체 변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발전 의지이다. 모든 해석 주체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구심적 관념의 구성과 공동체를 벗어나려는 원심적 관념의 구성 의지를 갖는다. 이 관념 구성 의지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단서가 된다.

34) 각주 26참조

V. 해석 공동체의 지향

해석 공동체는 다양한 해석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주체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구심적 지향과 주체의 변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원심적 지향을 함께 갖는다. 구심적 지향은 관념 소통을 통한 공동체 유지 욕망의 발현이고, 원심적 지향은 해석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이탈 욕망의 발현이다. 그래서 주체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 의식과 이탈 의식을 함께 가진다. 구심적 지향은 해석 주체 간의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 및 해석 관념의 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원심적 지향은 새로운 공동 관념의 구성과 해석 전략 및 해석 관념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 지향은 상호 길항 작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킨다. 해석 공동체가 지향하는 내용을 공동 관념의 공유, 해석 주체의 유대 강화, 해석 전략의 공유, 관념의 소통, 공유관의 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공동 관념의 공유

해석 공동체의 공동 관념은 공동체마다 다르다.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고, 관점이나 이론에 근거한 관념일 수도 있다. 해석 주체들의 텍스트 해석에 바탕이 되는 관념이면 공동 관념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관, 민족관, 선(勸善懲惡), 덕(仁義禮智信), 충, 효, 자비, 신념 등이 공동 관념이었고, 오늘날에는 미, 가치, 진리, 이론, 관점, 과학, 논리 등이 공동 관념이다. 이들은 일반적 공동 관념이다. 공동체들은 자체의 공동 관념을 선택하거나 만들어야 한다. 공동 관념은 찾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해석 주체들의 의식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해석 공동체에서는 특정 관념을 구성원들이 합의 하에 선택함으로써 공동 관념이 된다. 해석 주체는 해석 공동체에서 정한 공동 관념을 수용한다. 해석 주체들이 공동 관념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념의 부분을 사라지게 된다.

공동 관념은 해석 공동체 내에서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합의된 관념이다. 그래서 해석 주체들이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관념이다. 임의적으로 선택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다. 타당한 근거와 논리가 바탕이 된 관념이다. 예를 들어, '미'를 공동 관념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합의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미'(아름다움)의 개념, 조건, 구조, 기능, 의의 등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다. 개인의 편협한 생각이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관념은 해석 주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동 관념은 그 자체가 의미 있어야 되는 내재적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되는 외재적 가치를 모두 지녀야 한다. 물론 외재적 가치는 해석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해석 공동체에게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공동 관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

공동 관념은 해석 공동체의 특성을 결정한다. 해석 주체들은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관념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공동 관념은 해석 주체들의 관념이 일정한 경향성을 갖도록 한다. 해석 주체들이 갖는 공동 관념이 다르면 해석의 경향성은 달라지게 된다. 해석 주체들이 어떤 공동 관념을 공유하는가에 따라 해석 관념이 달라지는 것이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들이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면 제지를 한다. 공동체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념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그 요구에 따를 것인지는 해석 주체가 판단한다. 해석 공동체는 공동 관념을 내세워 해석 주체의 해석 관념이 해석 공동체적 특성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공동 관념의 특성은 다른 공동체와의 구별을 의미한다.

해석 공동체 구성원은 텍스트 해석을 하기 위하여 공동 관념을 공유해야 한다. 해석 주체의 공동 관념의 공유는 해석 공동체 내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해석 주체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 구성원과의 관계의 증진이나 관념의 유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석 주체의 공동 관념 공유는 해석 공동체가 적극 지원한다. 지도자를 통하여 교육하거나 다른 해석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예를 들어 세 살배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책을 읽어 주면서 특정한 내용이나 장면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이러한 설명은 어머니가 속한 해석 공동체의 공동 관념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나 다른 해석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공동 관념 공유를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2. 해석 주체의 유대 강화

해석 주체는 타 해석 주체와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존재한다. 타 주체를 전제하지 않는 주체는 없다. 주체는 타 주체에서 비롯된다. 주체의 관념도 타 주체의 관념과 관계 속에 있다. 주체는 타 주체가 없으면 존재 가치를 잃는다. 주체의 특징은 관념에 의하여 드러난다. 주체가 구성한 관념과 타 주체가 구성한 관념이 구분될 때 주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³⁵⁾. 해석 공동체의 해석 주체는 타 해석 주체와 관념을 공유하는 부분을 가지면서 차이 나는 부분을 함께 갖는다³⁶⁾. 즉, 해석 주체는 텍스트 해석을 통하여 공유 관념과 개별 관념을 함께 구성한다. 그래야 주체의 유대나 공동체가 의미를 갖는다. 주체 간의 관념의 일치해 해석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은 조직체이다. 근본적으로 해석 주체들은 차이를 갖는다. 이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 함께 하지는 의식이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연대(유대)라는 것은 바로 주체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대변한다. 차이가 없으면 연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해석 관념 속의 공동 관

35) 주체와 관념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05)을 참조할 수 있다.

36) 후설은 상호주관성을 논의하면서 주체들 간의 완전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타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타자는 내가 실제로 그의 어떤 한 구간에서 나와 완전히 해명할 수 없는 그의 개별적 역사성, 그의 발생적 자기구성과정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이남인, 2003:41. 재인용).

념을 확인하여 공유 관념을 확장하는 것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해석 주체들은 동질의 공유 관념 구성을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게 된다.

해석 주체들의 상호작용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타 주체와 구별되는 관념만을 고집하는 고립적 상호작용 방식도 있고, 타 주체와 관념을 서로 일정 부분 공유하는 연대적 상호작용 방식도 있다. 전자가 주관 중심 상호작용이고, 후자가 상호주관 중심 상호작용이다. 전자는 해석 주체에 관심이 놓여 있고, 후자는 해석 관념에 관심이 놓여 있다. 전자는 주체가 다른 주체와 얼마만큼 구별되는가가 중요하고, 후자는 주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해석 공동체 중심의 관점에서는 주체나 관념 어느 한 쪽에 관심이 놓이는 것이 아니다. 주체와 관념 모두 중요하다. 해석 주체는 타 주체의 존중과 공동체를 의식해야 한다. 그것은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해석 주체가 구성하는 공유관은 주체의 관념과 타 주체의 관념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 관념이 연합된 것이다. 주체가 타 주체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주체대로의 역할이 있고, 관념은 관념대로의 역할을 한다. 주체만 강조되면 해석 전략만 남고, 관념만 강조하면 공동체만 남는다. 그래서 주체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하고, 관념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해석 주체들은 서로 연대를 강화하여 해석 공동체를 구성한다.

3. 해석 전략의 공유

해석 공동체의 해석 주체의 특성은 해석 전략에서 드러난다. 해석 주체들은 같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룬다. 예를 들어 텍스트 중심 해석 전략을 사용하는 해석 주체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해석 전략은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이면서 관념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또한 해석 주체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해석 전략이 달

라지면 해석 주체들의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즉, 다른 해석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석 공동체의 구성은 해석 주체의 해석 전략 공유를 필요로 한다.

전략의 공유는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들은 다른 읽기 주체로부터 해석 전략을 배워야 한다. 전략의 학습은 주로 중재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배울 수 있다. 학교로 치면 교사를 통하여 해석 전략이 학생들에게 교육된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해석 전략을 배우기 전까지는 해석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공통점이나 관념적 유대를 가질 수 없다. 교사에게 해석 전략을 배우게 되면 학생들은 해석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교사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미시 해석 공동체를 이루고, 거시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전략을 바탕으로 서로 유대감을 강화한다. 해석 주체들이 근본적으로 타 주체를 의식하여 탄생된 것이고, 타 주체와의 관계 증진을 추구한다. 주체는 타 주체와 관계 맺기를 근원적으로 원한다. 해석 주체는 같은 해석 전략의 사용으로 타 주체와 관계를 맺는다. 타 주체와 같은 해석 전략의 공유는 서로에게 신뢰를 주어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한다. 해석 전략의 공유는 주체의 존재 방식이자 해석 공동체의 구성 조건이다. 따라서 해석 주체들은 해석 전략을 통하여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고 타 주체와의 심리적 연대를 강화하게 된다.

4. 관념의 소통

해석 주체들은 관념의 소통을 지향한다. 관념의 소통은 서로의 관념을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통은 공동 관념에 비추어 주체의 해석 관념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관념의 소통은 해석 주체의 관념을 정교화 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석

공동체는 관념의 소통을 통하여 유지된다. 해석 주체들이 같은 해석 전략을 공유한다고 하여서 관념을 소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해석 전략은 공동체로서의 조건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공동체의 작용을 이끌지는 못한다.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관념의 소통이다.

해석 주체들은 공동체 속에서는 다른 해석 주체와 만나게 된다. 주체들은 해석하고, 대화하고, 조정한다. 이들 활동을 통하여 주체들은 여러 관념을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념을 다른 관념과 비교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된다. 주체는 관념의 차이를 인식하면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통을 한다. 관념의 소통은 해석 주체 간의 관념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해석 주체는 소통을 통하여 타 주체의 관념과 연합함으로써 연대 의식을 갖는다. 해석 주체들의 관념 조정은 연대감을 높이는 좋은 기제이다. 해석 주체는 해석 관념이 공동체 의식과 가까울수록 깊은 연대 의식을 갖고, 멀수록 낮은 연대 의식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석 관념 구성을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념의 소통은 공동체의 발전의 핵심이다. 읽기 주체들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관념을 주고받는다. 학생 미시 해석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거시 해석 공동체의 관념이 개입하게 되고 학생들의 관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관념이 정교해지고 확장된다. 즉, 교사는 미시 공동체의 해석 주체를 거시 공동체의 해석 주체로 이끌어 간다. 그 결과 미시 해석 공동체는 거시 해석 공동체로 편입되면서 해석 주체의 발전이 일어난다. 관념의 소통은 해석 공동체를 확장하며 해석 주체의 변화를 이끈다.

5. 공유관의 구성

해석 주체가 구성하는 공유관의 뿌리는 공동 관념이다. 해석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은 해석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에게 일차적으로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관념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해석 주체도 해석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관념을 구성한다. 공유관은 일차적으로 해석 주체와 해석 공동체 간의 상호주관이다. 이 상호주관의 공유 관념은 해석 주체와 해석 공동체의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해석 주체의 개별 관념은 해석 공동체와 차이를 드러내는 관념이다.

공유관은 해석 주체들 간의 상호주관도 갖는다. 해석 주체의 관념 구성은 다른 해석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해석 주체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념의 재구성을 한다. 그래야 해석 공동체의 특성을 갖는 관념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해석 주체 간의 상호주관은 서로의 개별 관념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해석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을 드러내 놓고 대화를 통하여 개별 관념을 조정하여 공유 관념을 구성한다. 공동 관념과의 상호주관도 그렇지만 개별 관념에 대한 상호주관도 서로의 차이점을 완전하게 없애서 통일된 관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해석 주체들의 개별 관념은 어디에서나 존중된다. 공유관은 서로 형제와 같은 닮은꼴이다. 공유관은 같은 공동 관념과 해석 주체들의 개별 관념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기에 같은 면이 있고, 개별 관념이 존중되기에 다른 면이 있다. 해석 주체의 관념은 서로 닮았지만 각자의 특성을 갖는다.

공유관은 해석 주체들의 관념적 연대를 공고히 한다. 공유관은 해석 주체의 관념이 얽혀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해석 주체의 관념에 대하여 다른 해석 주체도 책임감을 갖는다. 해석 주체들은 공유관의 구성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그리고 상호작용의 상대로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공유관은 공동체 구성원의 관념적, 신념적, 의지적 활동의 결과인 것이다. 이 공유관을 통하여 해석 주체들은 해석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다지게 된다.

VI. 결 언

그동안의 읽기 교육은 독자 중심의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해석 주체의 창의적 관념 구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의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의 존중과 해석 관념의 개별성 및 다양성을 지향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텍스트 해석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체적 관념을 구성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자신의 관념에만 관심을 둘 뿐 다른 독자의 생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독자들이 각자의 관념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독자들은 다른 독자의 관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관념만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이러한 읽기 교육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읽기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체주의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읽기 교육에서 공동체주의 관점은 해석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들의 관념의 연대로 이루어진다. 해석 주체들은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념을 구성한다. 해석 주체들의 관념 소통은 주체들이 하나의 해석 공동체를 이루도록 유대를 강화한다. 그 결과 해석 주체들은 해석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해석 공동체 구성을 위한 읽기 교육은 독자 중심(자유주의, 개인주의) 읽기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해석 공동체의 의미를 해석 주체가 해석 전략과 공동 관념을 활용하여 해석 관념을 공유하는 조직체라고 보았다. 이 해석 공동체는 세부적으로 미시 해석 공동체, 거시 해석 공동체, 중재 해석 공동체, 총체 해석 공동체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미시 해석 공동체는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이고, 거시 해석 공동체는 미시 해석 공동체가 두개 이상 연합한 공동체이다. 중재 해석 공동체는 미시와 거시 해석 공동체를 매개하는 공동체이며, 이들 해석 공동체는 공동 관념의 공유, 해석 주체들의 유대 강화, 전략의 공유, 관념의 소통, 共주관의 구성 등을 지향한다.

해석 공동체는 독자 중심 읽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독자 중심 읽기는 읽기 주체의 주관을 강조한다. 이는 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의 독창적이고, 개별적인 면을 부각시켜 타 주체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해석의 부정부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해석 공동체는 이런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준다. 해석의 부정부주의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 가능한 관념 구성을 지향한다. 이 글에서는 해석 주체들이 소통 가능한 관념 구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해석 주체의 共주관 구성이 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이 논의는 앞으로의 읽기 교육이 읽기 주체들의 共주관 구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해석 공동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읽기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성격 규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해석 주체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탐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급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해석 공동체의 개념을 살피면서 교육적 접근의 가능성만을 얼핏 엿보았다. 읽기 교육에서 해석 공동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논의로 미룬다.*

* 본 논문은 2006. 6. 19. 투고되었으며, 2006. 7.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6. 7.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선보(2005), 『마르틴 부버 만남의 교육철학』, 원미사.
- 김건우(1996), “한국 전후세대 텍스트에 대한 서론적 고찰”, 『외국문학』제49집, 열음사.
- 김도남(2005), “리캅의 욕망 이론과 읽기 교육의 문제”,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제24집.
- 김도남(2006),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제25집.
- 김병환·정남영·장남수 역(2005), 『문학이론입문』, 창작퍼블리싱사.
- 김병길·김신옥(2002), “후설의 상호주관성 구성의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20집.
- 김상욱(2004), 『소설 교육의 연구 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선구(1999), 『공동체주의와 교육』, 학지사.
- 김태훈(2002), “공동체의 기본 요소들”, 정세구 외, 『공동체주의교육』, 교육과학사.
- 박경일(2005), “비교문학과 학문공동체”, 한국비교문학학회, 『비교문학』제35집.
- 박일봉(1988), 『대학·중용』, 육문사.
- 박찬석(2002), “공동체주의 기능과 공동체의 구성원의 역할”, 정세구 외, 『공동체주의교육』, 교육과학사.
- 박태호(1996), “사회구성주의 페러다임에 따른 작문교육이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재 외(2003),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 신현재 외 역(2004),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 신현재·진선희(2006),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론』, 박이정.
- 오혁진(2005), “학습공동체의 다차원적 성격과 구현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제11집 1호.
- 유병렬(2002), “공동체주의 도덕교육론”, 정세구 외, 『공동체주의교육』, 교육과학사.
- 이남인(2003),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 문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제16집.
- 이소희(1998), “영화 ‘킬러피플’에 대한 독자반응연구”, 영어문학교육학회, 『영어문학교육』제2호.
- 이지현 편저(1997), 『개인, 공동체, 교육 II』, 교육과학사.
- 지정옥(1995), 『프로젝트 접근법』, 창지사.
- 추병환(2002), “자유주의와 도덕교육 이론의 한계와 공동체주의적 도덕교육 이론의 관점”, 정세구 외, 『공동체주의교육』, 교육과학사.
- 편집부 위음(1984), 『개인과 공동체』, 백산서당.
- Fish, S.(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초록>

해석 공동체의 개념 탐구

-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

김도남

읽기 교육은 독자의 의미 구성 방법을 지도한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은 개별 독자의 관념 구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관점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독자의 자기중심적인 관념 구성을 강조하였다. 이 관점의 읽기 교육은 해석 주체들의 독창적 관념 구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해석 주체들과 관념 소통의 문제를 간과하였다. 그 결과 해석 주체가 구성한 관념은 다른 해석 주체와 소통을 전제하지 않게 되어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고 있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 간의 관념의 소통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 관점을 수용하여 해석 주체에게 타 해석 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관념 구성을 요구한다. 해석 주체들은 해석 공동체의 공동 관념과 해석 전략을 활용하여 타 해석 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관념을 구성한다. 해석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해석 주체의 관념 구성은 자유주의 관점의 관념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들의 조직체이다. 해석 공동체는 미시 해석 공동체, 거시 해석 공동체, 중재 해석 공동체, 총체 해석 공동체로 구분된다. 이들 공동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긴밀하게 작용하여 해석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킨다. 해석 공동체는 해석 주체들의 관념 연대를 통하여 유지된다. 해석 주체들은 관념적 연대를 위하여 공동 관념의 공유, 해석 주체의 연대, 관념의 소통, 전략의 공유, 공유관의 구성 등을 한다. 해석 주체들은 타 해석 주체들과 관념공유를 통한 연대로 해석 공동체를 구성한다.

읽기 교육에서는 해석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독자 중심 접근의 문제인 독자 사이의 관념 소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는 해석 공동체의 개념을 탐구하면서 읽기 교육의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차후 논의에서는 해석 공동체 구성 교육 방법의 탐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해석 공동체, 공동체주의, 읽기 교육, 해석 주체, 해석 전략, 해석 관념, 공동 관념, 공유관

<Abstract>

**The Conception of Interpretive Communities:
for Reading Education**

Kim, Do-nam

The interpretive communities is an organism of reader. The members of it, who are the interpretive subjects, own idea of community, public idea and interpretive strategies jointly. The interpretive subjects construct interpretive idea by using the public idea and interpretive strategies based on idea of community. The interpretive subjects interact each other for holding the interpretive idea in association, which is the joint-subjectivity. The interpretive subjects form the interpretive communities by constructing the joint-subjectivity.

The now reading instruction is conducted relying on views of the centered-reader which based on liberalism. It claims that the reader must constructs the unique idea, which is originative and private idea of reader, in reading. The reader can't communicate each other with the unique idea. Because of it is isolated idea in one reader. The interpretive communities demand to reader to interact each other for idea. It based on communitarianism. If the reading educator choose this view, the reader constructs common idea for community.

The reading education could be changed renewedly. The one method of refreshing reading instruction is to accept the conception of the interpretive communities. In interpretive communities, the interpretive subject constructs joint-subjectivity by using the public idea and the interpretive strategy. The reading teacher must study about reader communities.

【Key words】 interpretive communities, communitarianism, reading education, interpretive subject, interpretive strategy, interpretive idea, public idea, joint-subjectivity.